

2023.05.04.(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이지환 보좌관(우원식 의원실) 010-9254-9137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성명서] 윤석열정부는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2023년 5월 4일(목) 17:00,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故 양희동 지대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건설노조 양희동 지대장을 막다른 선택으로 내몬 비극의 원인을 밝히고, 무리하고 부당한 강압 수사를 자행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적, 입법적 권한으로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노동 탄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돌아가신 건설노조 양희동 지대장의 안타까운 비극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다단계하도급 구조의 모순은 외면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노조때리기’로 전가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교활함과 무능함에 그 책임이 있다. 나아가 장관들과 수사기관들이 무리한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은 날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노조때리기로 만회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알팍한 국민 분열 공작이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양희동 열사의 죽음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노조때리기 정책이 자초한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건설노조 故 양 지대장의 죽음을 두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계기”와 “공정과 노사상생 관행”라는 논평거리로 활용할 뿐이다. 국민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먼저 살피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냉혈함과 뻔뻔함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가?

검경이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양 지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금세 드러난다. 직업안정법상 합법적 인력공급권한이 있는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와 합법적인 교섭을 벌여 체결한 고용차별금지 합의는 어느새 ‘조합원 채용 강요’가 되었고, 3개월, 6개월 수시로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 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건설노조와 사업자단체가 노조 전임비를 합의한 것은 ‘갈취’로 둔갑되었다.

건설산업의 인력공급구조가 다른 산업과 전혀 다르기에 국토부와 노동부의 소관 법률과 정책에 이

와 같은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수사를 전담하는 검경은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태도로 밀어붙이고 건설현장과 노사관계를 담당해오던 관계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 심지어 경찰의 인사고과에 건설노조 조합원 기소실적이 반영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故 양 지대장과 같이 검경의 수사대상이 되는 건설노동자들이 약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를 때려잡겠다고 윤석열정부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칼날에 노동조합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까지 인력수급과 노사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윤석열식 경제해법이라면, 국민들께선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비극적 사안에 사과하고 건설노동자 탄압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다단계하청구조의 갑을관계, 인건비 따먹기, 산업안전 확대 등 건설산업의 진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다. 하지만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다” 라던 故 양 지대장의 마지막 외침을 윤석열정부는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해서 정권의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치졸한 정권의 말로는 결국 노동자가 대다수인 국민들에 의한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이제라도 故 양회동 지대장과 그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자 때리기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토끼몰이 공안통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